

운전자금 지원부터 착한가격업소까지 실질 지원 강화



소상공인 운전자금 확대 협약

고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민선 8기 고창군의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최고 수준인 20% 특별할인을 시행해 상반기에 만 4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7월 18일부터는 행안부 지침 완화에 따라 가맹점 사용처를 확대해, 농협 농자재판매장 7개소(고수, 아산, 성송, 삼원, 성내, 신림, 부안)에서도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평상시에도 10% 특별할인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가적인 특별할인을 시행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운전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총 130억원 규모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총 13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연 5% 이차보전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신규 디자인

는 '희망더드림 특별보증 융자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5년간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한도와 조건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총 12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융자와 1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포함해 총 13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읍·면사무소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 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적시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정책 체감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수수료 지원 상한액 상향... 최대 50만원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확대

카드수수료 지원 상한액도 상향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2배로 늘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위한 활동 지원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2배로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의 노후·폐업 등에 대비한 자산 형성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중앙회나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자이며, 가입 후 납입을 유지할 경우 올해 1년간 총 18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전담창구' 운영... 맞춤형 상담·교육으로 경영 애로 해소

고창군은 2022년부터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개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각종 정부 직접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분기별로 경영·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창구'와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고창군과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물가 안정 기여

군은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25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업소당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합리적인 가격, 위

생, 서비스 등을 갖춘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만족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전통시장 시설투대화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 고창시장 5동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노후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장터정장 보호기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와 시장 내 환경정비 등을 지원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고창군 버스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를 위해 장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장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창군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두근두근 설렘 가득!

2025 진안 홍삼축제

9.26(금)~28(일)

마이산 북부

GO START

홍삼콘서트

홍삼바베큐

홍삼팔랑~파워!

향금홍삼

2025 JINAN Red Ginseng Festival

아름다운민족문화

주 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_063)430-2391~3 www.jinan.go.kr/festival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문화관광축제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축제